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 양육효능감 연구의 기초자료 -

정미현*

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척도개발과 이에 대한 타당화 연구이다. 양육지식척도 개발연구는 Huang et al(2005)이 제작한 영아기 양육지식척도인 KIDI(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를 본 연구자가 제작자의 동의하에 번안하여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수정된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KCDI,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은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등 4가지 하위척도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지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의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척도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척도로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육지식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논문제출일 : 2011.4.24

최종심사일 : 2011.5.11

게재확정일: 2011.6.15

* 남서울대학교·상명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eong, Mi-hyu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Jonglo-gu, Seoul, Korea, 110-743. E-mail : childrenk@hanmail.net

I. 서론

최근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Davis-Kean et al., 2008),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양육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다(Bryanton, 2008). Leerkes와 Burney(2007)는 양육효능감을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정미현(2010)은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양육 상황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보다 수용적이고 비차별적이다(Bryanton et al., 2008).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다(Gerdes et al 2007). 양육효능감은 신념적인 부분에서의 인지적 차원(Coleman & Karraker, 2003)과 문제해결능력인 기술 등의 행동적 차원(Baumrind, 1991),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적 차원(Teti et al., 1995)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념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의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효능감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Hamama et al., 2008; Meunier & Roskam, 2009; Surkan et al., 2008)들을 보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변인, 자녀변인, 환경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어머니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 등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효능감과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은 매우 상관이 높은 요인으로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Morawska, 2009).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을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양육효능감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영유아기에 대한 발달의 지식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대해 더욱 유능감을 느끼게 하며, 반대로 영유아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진다. 최근

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양육지식의 향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정미현, 2010).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5개의 요인으로 측정가능하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러한 양육지식은 아동의 사회심리적, 인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효능감과 양육지식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Morawska, 2009). 따라서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양육지식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양육효능감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지식관련 연구들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용어나 어휘 부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고 있어서 한국적 문화를 고려하여 제작 된 척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양육지식 척도 중 일부는 육아지원이나 보육제도 등 부모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양육지식 척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서에 맞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와 양육지식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는 신뢰로운가?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는 타당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2006).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양육상황에 적용한 개념이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Cheung, Lam, & Ngai, 2008). 정미현(2010)은 양육효능감 연구를 통하여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양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 즉 신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미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중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고, Guimond, Wilcox와 Lamorey(2008)는 주 양육자의 양육능력은 주 양육자의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주 양육자의 지식 향상을 통해 주 양육자의 능력이 개선되고 이는 양육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150명이 편의 표집되었으나 이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는 1명을 제외한 14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
자녀의 성별	남	79	53.5
	여	70	46.5
자녀의 나이	만 2세	32	21.4
	만 3세	40	26.8
	만 4세	42	28.1
	만 5세	35	23.4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40	26.8
	둘째	38	25.5
	셋째이하	22	14.7
	외동	49	32.8
연구대상자 연령	20대	20	13.4
	30~35세	58	38.9
	35~40세	49	32.8
	40대 이후	22	14.7
배우자 연령	20대	8	0.5
	30~35세	38	25.5
	35~40세	76	51.0
	40대 이후	35	23.4
연구대상자의 직업	전업주부	83	55.7
	전문직	14	9.39
	사무직	12	8.05
	자영업	5	1.30
	기타	35	23.4

배우자의 직업	전문직	23	15.4
	사무직	38	25.8
	기술직	52	34.8
	자영업	23	15.4
	기타	13	8.72
가족의 형태	핵가족	118	79.1
	확대가족	31	20.8

2.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양육지식척도개발을 위해 Huang(2005)의 양육지식 척도(KIDI) 중 질문 문항이 한국적 상황이나 영유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는 문항을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기초로 수정된 30문항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기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응답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질문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표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50부의 자료를 가지고 30개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천정효과와 극단적으로 작은 표준편차를 가진 문항6개를 제외한 24개 문항이 결정됐다.

2) 본조사

양육지식 척도개발을 위한 본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50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및 성실한 답변이 아닌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4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24문항의 수정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Huang(2005)이 제작한 척도인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를 제작자의 동의를 받아 본 연구자가 번안한 뒤 영유아의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수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0문항으로서, Likert식 3점 척도이며, 요인분석에 의해 발달단계, 육아, 훈육에 대한 지식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2$ 이다.

<표 1> Huang(2005)의 양육지식(KIDI) 하위 영역별 신뢰도와 타당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발달단계	21(2, 4, 6, 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5, 26, 27, 28, 29, 30)	.70	.81
	육아	6(1, 3, 5, 9, 12, 13)	.70	.81
	훈육	3(7, 10, 11)	.70	.81
양육지식 전체		30	.72	.82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rogram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구인타당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요인분석

양육지식(KCDI)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Component			
		1	2	3	4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	KCDI23	.650	-.015	.100	-.097
	KCDI22	.628	.160	-.016	-.045
	KCDI15	.548	.196	.126	.115
	KCDI19	.539	.070	.299	.083
	KCDI17	.518	.224	-.309	.059
	KCDI28	.500	-.142	.083	.150
	KCDI20	.491	-.012	.160	.204
발달 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KCDI16	.101	.648	-.122	.053
	KCDI10	-.053	.629	.052	.012
	KCDI3	-.032	.462	.127	.144
	KCDI29	.209	.448	.030	.020
	KCDI30	.267	.430	.098	.336
	KCDI13	-.008	.416	.101	.125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KCDI4	-.097	.037	.700	.215
	KCDI5	.081	.068	.586	.013
	KCDI12	.180	-.132	.569	-.169
	KCDI21	.154	.246	.505	.035
	KCDI6	.332	.315	.459	-.081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KCDI9	.154	.354	.278	-.583
	KCDI18	.090	.091	.030	.564
	KCDI7	.008	.290	-.099	.522
	KCDI27	-.018	.122	.153	.520
	KCDI26	.180	.188	.093	.423
	KCDI24	.318	-.039	-.098	.421

고유값	3.701	1.954	1.678	1.432
분산율	11.018	9.083	8.544	7.879
누적분산율	11.018	20.101	28.644	36.524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고, .70이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고, .50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이나, 0.50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705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619.115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4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701, 설명비가 11.01%로 나타나 A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1.95, 설명비가 9.08%로 나타나 B 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1.67, 설명비가 8.54%로 나타나 C 요인을, 요인 4는 고유값이 1.43, 설명비가 7.87%로 나타나 D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행렬의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 혹은 문항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 간 상관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각 변수 혹은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한다. 요인부하량은 ± 0.3 이상이면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요인 1은 15, 17, 19, 20, 22, 23, 28번 문항의 7개 문항이, 요인 2는 3, 10, 13, 16, 29, 30번 문항의 6개이, 요인 3은 4, 5, 6, 12, 21번 문항의 5개 문항이 요인 4는 7, 9, 18, 24, 26, 27번 문항의 6개 문항이 설명하고 있다. 네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분산의 36.54%를 설명하고 있어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한 본 연구의 척도를 문항양호도와 요인분

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에서 30개 문항 중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28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scree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전체 변량의 36.54%를 설명하는 네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1.0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요인 1은 1은 15, 17, 19, 20, 22, 23, 28번 문항의 7개 문항이 해당되고, 이 문항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로서 자녀의 연령별 발달이 적절한지, 연령에 적합한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서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3, 10, 13, 16, 29, 30번 문항의 6개로서 이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촉진에 관한 질문과 긍정적 발달촉진을 위해 필요한 영유아기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발달 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 5, 6, 12, 21번 문항의 5개 문항으로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로서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양육방식에 대한 질문과 아동으로 하여금 연령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적절한 훈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문항들은 올바른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7, 9, 18, 24, 26, 27번 문항의 6개 문항이 설명하고 있다. 이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과 정상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및 발달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영유아 각 개인의 특성과 개인적 발달차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질문을 담고 있어서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양육지식에 대한 연구인 MacPhee와 Miller-Heyl(2003)에 의한 연구 결과와 유의미하다. 양육지식과 관련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이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7(15, 17, 19, 20, 22, 23, 28)	.72	.83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6(3, 10, 13, 16, 29, 30)	.72	.83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5(4, 5, 6, 12, 21)	.72	.83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6(7, 9, 18, 24, 26, 27)	.72	.83
	양육지식 전체	24	.74	.85

2. 신뢰도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서 나타난 양육지식 척도는 다음 <표 4>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전체의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 합치도의 경우 신뢰도는 .74이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양육지식(KCDI)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양육 지식	연령별 발달에 따른 지식	7(10, 12, 14, 15, 17, 22, 18)	.72	.83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6(1, 7, 9, 11, 23, 24)	.72	.83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5(2, 3, 4, 8, 16)	.72	.83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6(5, 6, 13, 19, 20, 21)	.72	.83
	양육지식 전체	24	.74	.8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먼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개발과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척도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문항의 반응분포와 문항의 변별도에서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이 .72,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이 .72,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이 .72, 개인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이 .72, 전체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성된 척도는 신뢰롭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문항의 양호도,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는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겠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는 4개 영역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포함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지식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는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은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 발달촉진과 유아기 경험에 대한 지식,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훈육에 대한 지식, 경험차 및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 등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 양육지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의 요소인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중의 한 요인으로서 접근하였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는(정미현, 2010) 양육지식을 올바르게 측정함으로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영아기에 국한되어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기 역시 부모의 양육지식이 아동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시기이므로 아동기 양육지식 척도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양육지식척도(KCDI)>

1. 영유아들은 항상 관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식사하기를 지속하려 한다.	1	2	3	4	5
2. 일반적으로 아기들은 출생 시 보거나 냄새 맡지 못한다.	1	2	3	4	5
3. 어떤 날은 자녀를 훈육하고 다른 날은 같은 일을 무시한다. 훈육은 그날 그날의 기분 에 달렸다.	1	2	3	4	5
4.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영아기부터 엄격하게 훈육하는 편이다.	1	2	3	4	5
5. 어린동생이 생길 때 손가락을 빠는 퇴행행동을 수용하고 있다.	1	2	3	4	5
6. 자녀가 웃거나 쳐다보기 전에는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7. 영아는 주위가 너무 시끄럽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주위에 무관심해 진다.	1	2	3	4	5
8. 우는 자녀를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를 더 망치는 행동이다.	1	2	3	4	5
9. 영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편이다.	1	2	3	4	5
10. 대부분의 만 2세 영아는 TV상의 이야기와 실재를 구별하여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11. 영아는 12개월 전후하여 걷는다.	1	2	3	4	5
12. 8개월 된 영아는 낯선 사람들과 낯익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다.	1	2	3	4	5
13. 7개월에 영아는 물건을 잡기위해 손을 뻗을 수 있다.	1	2	3	4	5
14. 만 2세 영아는 성인처럼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15. 12개월 된 영아도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6.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는 무시해야 한다.	1	2	3	4	5
17. 대부분의 영아는 15개월경에 화장실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1	2	3	4	5
18. 영아기 자녀의 인지발달 촉진을 위해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1	2	3	4	5
19. 자녀가 말을 안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도와주는 것이 좋다.	1	2	3	4	5
20. 자녀를 훈육할 때는 큰 소리로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21. 영아기 자녀의 신체발달 촉진을 위해 보행기에 태워주고 있다.	1	2	3	4	5
22. 만 3세 유아는 혼자놀이를 즐긴다.	1	2	3	4	5
23. 12개월 된 영아는 숨길 때 본 장난감을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24. 보통의 만 3세 유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1	2	3	4	5

역코딩문항 : 1, 9, 11, 12, 13, 15

참 고 문 헌

- 정미현(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개발. *부모교육연구*, 7(1), 45-58.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pp. 307-337, Vol. 4).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ryanton, J., Gagnon, A. J., Hatem, M., & Johnston, C. (2008). Predictors of Early Parenting Self-efficacy. Results of a Prospective Cohort Study. *Nursing Research*, 57(4), 252-259.
- Cheung, Chau-kiu., Lam, Ching-man., & Ngai, Steven. Sek-yum. (2008). Help from the parent-teacher association to parenting efficacy: Beyond social status and informal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1134-1152.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Davis-Kean, P. E., Collins, W. A., Bates, J. E., & Lansford, J. E. (2008). Changes in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and behaviors acros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9(5), 1257-1296.
-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M., Wigal, T., & Jensen, P.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705-714. UCB Broadcasters Ltd.
- Guimond, A. B., Wilcox, M. J., & Lamorey, S. G. (2008). The early intervention parenting self-efficacy scale(EIPS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0(4), 294-320.
- Hamama, L., Ronen, T., & Rahav, G. (2008). Self-control, Self-efficacy, Role overload, and stress responses among siblings of children with cancer.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3, 121-132.
- Huang, Keng-Yen., Caughy, M, Genevro, J., & Miller, T. (2005).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quality of parenting among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49-170.
- Leerkes. E. M., & Burney. R. V. (2007).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fficacy among new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Infancy*, 12(1), 45-97.
- MacPhee, D., & Miller-Heyl, J. (2003). *Parent self-Efficacy mediates the impact of family intervention*.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th, Toronto, Canada, 7-10.

- Meunier, J.,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8, 495-511.
- Morawska, A., Winter, L., & Sanders, R. (2009). Parenting knowledge and its role in the predic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and disruptive child behavior.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2), 217-226.
- Surkan, P. J., Ichiro Kawachi, S., Ryan, L., Berkman, L. F., Carvalho Vieira, L. M., & Peterson, K. E. (200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 grow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 125-132.
- Teti, D. M., & Gelfand, D. M., Messinger, D. S., & Isabella, R. (1995). Maternal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early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fants,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64-376.

Abstract

A study on validity of parenting knowledge scale

Jeong, M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bout validity of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Scale(KCD) & to explore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knowledge according to development stages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and to investigate related variable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This will be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parenting efficacy program for preschool child mothers. This study was investigate of Huang(2005)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 30 items)'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Second,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Third, There are 4 sub scale: The knowledge about developmental stage, The knowledge abou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The knowledge about parenting style and discipline, and The knowledge about individual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principle.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knowledge, self efficacy

* Lecturer, Sangmyung University